

귀촌일기 - 씨앗

아침을 열며

박찬규
진이찬방식품
연구센터장



농촌에 봄이 오면 만물이 기지개를 켜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신인 벼농사에 대한 준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겨울동안 묵혀 놓았던 눈에 거름을 하고 논갈이를 한다. 겨울동안 땅 속에서 잠자고 있는 각종 해충의 알이 눈을 갈아엎으면 그 후 한낮의 태양으로 살균하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모내기를 하기 전 작년에 수확한 벼뿌리가 완전히 썩을 수 있도록 2번의 논갈이를 한다. 벌써 대부분의 논에서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다. 올해도 눈을 다소 깊이 갈아 우렁이의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다음 달이면 벼씨를 고르고 모판을 만드는 것으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벼는 하계 작물로 크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눈다. 조생종에는 오대, 조명1호, 조영, 해담쌀, 해들, 고시하카리가 해당되며 중생종에는 알찬미, 해춤이 해당되고, 중만생종에는 새청무, 신동진, 안평, 영진, 영호진미, 일품, 참동진, 참드림, 추정, 친들, 꿈마지, 동진찰, 백옥찰이 해당된다.

이밖에 보리, 밀, 옥수수 등도 우리의 주요 식량이 되며 조, 피 기장, 강낭콩,

콩 등은 보조 식량자원이 된다. 또한 콩, 땅콩, 깨, 아жу까리, 해바라기 등은 유지류로 이용되며, 커피 및 코코아 등은 기호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씨앗은 인간생활에 주요한 자연자원의 하나로 용도가 다양하며 그 저장물질에 따라서 녹말을 주영양물질로 저장하는 벼와 같은 녹말종자와 지방을 주로 저장하는 지방종자(참깨, 들깨, 아жу까리 등)로 구분할 수 있다.

벼와 식물은 씨앗으로 번식하며 씨앗을 종자라고도 부른다. 겨울동안 휴면상태에 있으며 두터운 껍질로 자신을 보호하며 껍질이 손상돼야 발아할 수 있다. 이러한 종자는 성숙과 더불어 휴면상태에 들어가며 건조에 잘 견디는 것이 보통인데 수분, 산소, 온도 등의 조건이 적당하면 발아해 새로운 식물체로 자라게 된다. 종자생산 양식에 따라 생육기간 중에 1회 종자를 만드는 경우, 여러 번 종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종자는 보통 파종하기 전에 물이나 소금물에 띄워보고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있으면 버리기도 하는데 물 위에 떠있는 종자들이 간혹 발아가 되기도 한다. 씨앗은 발아할 때와 초기 성장에서는 흙에 있는 영양분이 아니라 씨앗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만을 사용해 성장한다. 물 위에 뜨는 씨앗은 가라앉는 씨앗보다 영양분이 덜하므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튼실하지 못하고 약하다. 가라앉는 종자들은 발아율이 높은 반면 떠오르는 종자는 발아율이 낮다. 밀싹이나 그 외

의 새싹 채소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가벼워 물에 뜨는 종자들도 버리지 않고 이용하는 편이다.

또 파종하기 전에 각종 처리를 해야하는 씨앗도 많은데, 겨울을 난 것처럼 하는 저온처리하는 방법과 줄갈 모래 등을 이용해 껍질에 상처를 내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고온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황산이나 수산화나트륨으로 부식하는 경우도 있고 동물에게 직접 먹여 배설물로 배출시킨 씨앗을 사용하기도 한다. 때맞추어 심어야 하는 종자가 많아 농촌의 봄은 바쁘다.

씨앗은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수확한 농작물 중 내년의 농사를 대비해 가장 튼실한 것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 선별하는 작업을 씨앗선택이라고도 한다. 벼농사에서는 좋은 벼씨를 '씨나락'이라고 한다.

이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씨가 굵고 알차며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한다. 발농사의 작물인 조와 보리도 씨앗을 선별하는 작업은 마찬가지다. 씨앗은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습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고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해야 발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농사에서 씨앗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튼실한 것을 선별하고도 보관에서의 어려움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정도로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좋은 씨앗을 골라 파종하게 되면 그 해 농사가 풍작을 이룬다.

社說

개인적 성과경쟁 누굴 위한 평가인가

민주당과 지역 모두 도움 안돼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별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의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사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정당 또한 일정 수준의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발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평가 방법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공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전국 읍·면·동 단위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득표율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반영한 바 있다. 득표율과 투표율은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선관위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성과 중심의 정량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번 평가 기준 도입이 '성과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지역구 인사의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 같다.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평가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오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면만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인사들이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미래 먹거리 고민 등 책임 있는 정책을 외면하고 득표에 도움 되는 이슈만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득표 목표치를 기준으로 지역 인사들에게 투표 독려를 강요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에 큰 손실이다. 정책 논의보다 개인적 성과 경쟁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한다. 텃밭은 그냥 표를 주는 곳이 아니고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곳이다. 민주당은 정당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균형 잡힌 평가지표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표만 얻기 위한 평가는 결국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정당 정치의 본질을 훼손시킨다.

아름 딛고 안전한 공항으로 비상하길

무안공항 8월 안전대책 완료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8월까지 활주로 연장과 조류 대응 체계 강화를 포함한 전면적인 안전 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재정부의 결과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은 충격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그동안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

이번에 무안공항이 추진 중인 활주로 연장은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에 따라 활주로 양 끝에 240m 이상의 중단안전구역 확보함으로써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방어선을 갖추게 된다. 이는 국제 기준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지역공항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 조건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카메라, 음파 발생

기 등 정밀 감지 및 대응 장비를 도입하고, 전담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공항 반경 내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도 기존 3-8km에서 13km까지 확대되며, 내년에는 통합감시센터 시범 운영도 예정돼 있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항공 안전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의 역할은 단지 여객 수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물류의 허브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신뢰의 기반이다.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은 지금, 무안공항의 전면적인 안전 개편은 뒤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전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단발성 대책이 아닌, 항공안전을 지역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무안공항이 앞으로 안전성과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인 관문공항으로 도약해 나가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오른쪽)가 6일(현지 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경기 3회 초 2점 홈런을 친 후 홈에 들어와 윌리 아다메스와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로 파기 환송한 사례는 단순한 법적 다름을 넘어 '사법 불신'이라는 깊고 심각한 위기를 우리 사회에 안겼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유력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쳐질 수 있는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시켜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잇단

사법 불신과 'AI 판사'

줄속과 무리수로 법조계에서도 '사법 권력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대법원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표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7일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은 여전하다.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반복될수록 법원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재판에서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지금,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AI(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이다.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인공지능 기반 판결 시스템은, 적어도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선거운동 관련 사안처럼 정치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가 오히려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AI가 사법 판단에 활용되는 흐름이 현실이 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AI판사를 시범 도입해 소액 민사 분쟁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몇몇 법원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양형 판단 등의 보조 도구로 쓰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사법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AI 판사가 인간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적 판결이 의심받고,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냉소가 팽배한 지금, 오히려 비(非)인간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시스템이 더 신뢰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안타깝다.

박성원 편집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